

#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설비 대규모 투자... 관세장벽 넘는다

美 시장 통해 수익성 개선 모색  
3.2조 투자... '솔라허브' 구축  
"주요 시장 선도적 입지 강화"

한화솔루션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태양광 에너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희망을 걸어 수익성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3분기 매출 2조 7733억원, 영업손실 810억원, 당기순손실 38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하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3.5% 늘고 영업손익은 24.8% 개선됐다. 순손실은 17.5%로 확대됐다.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1조 1525억원, 영업손실 410억원을 기록했다. 개발자산 매각과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의 수익성



한화솔루션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개선 등에 힘입어 분기 적자 폭이 직전 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인해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목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500GW(기가와트)인 반면 중국 업체가 600GW(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한화솔루션 등이 생산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200GW가량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솔루션은 중국 업체의 공급과잉 영향이 비교적 적은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 카터빌에 총 3조 2000억원 규모를 투자

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내 상황이 바뀌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대규모 투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솔라허브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가치사실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생산하는 통합생산단지로 구축된다. 모듈을 시작으로 잉곳, 웨이퍼, 셀 공장이 차례대로 가동되면 한화솔루션은 북미 최초로 태양광 핵심 가치사슬을 현지에서 두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 신규 공장의 절반가량이 잉곳,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는 만큼 단순 환산하면 3750억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올해 연간 8.4GW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글로벌 태양광 모듈 생산량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8.4GW는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생산능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다. 미국 기준으로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통해 내년 미국 태양광 모듈 수요의 25%를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배척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화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은 제조 능력 증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꾀하며 미국을 포함한 주요 전략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상황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카터빌 공장 완공 등 기존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5m 전장에 1.8m 전고... 실내 공간 '와우'



###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현대적 디자인에 뛰어난 기능성 갖춘  
6000만원 중반대... 패밀리카 제격

'넓은 실내공간과 다양한 편의기능 그리고 특별함까지.'

가족단위 이동이나 일상적인 주행을 고려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혼다코리아가 국내 시장에 내놓은 대형 SUV 파일럿이 앞서 언급한 기능을 두루 갖춘 담백한 모델이다. 8년 만의 풀체인지를 거쳐 4세대로 진화한 파일럿은 실내 공간과 편의 장치를 대거 적용해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혼다코리아가 지난 9월 국내 시장에 선보인 대형 SUV '파일럿 블랙 에디션'을 시승하면서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우선 첫 느낌은 정통 SUV 스타일의 심플하고 파워풀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혼다 SUV 라인업의 아이덴티티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전면에는 검정 색상을 적용한 그릴 바와 전면 범퍼를 적용해 세련되고 깔끔해졌다. 20인치 블랙 알로이 휠로 웅장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강조했으며, 도어 하단 가니쉬(장식)와 후면 범퍼 하단부, 도어 미러와 몰딩까지 모두 검정색으로 통일감을 더했다. 또 전후면에는 블랙 에디션 전용 엠블럼을 적용해 블랙 에디션만의 정체성이 느껴졌다. 실내 공간도 블랙 에디션만의 독창적인 올블랙 및 레드 컬러를 조합해 통일감을 줬다. 나만을 위한 특별함이 느껴졌다.

파일럿은 진가는 실내공간이다. 5m가 넘는 전장과 1.8m의 높은 전고를 확보함에 따라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넓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주행모습.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2열 폴딩 모습.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 문 수납공간.

은 공간에서의 안락한 승차감을 즐길 수 있다. 특히 2열 가운데 시트는 탈거가 가능해 탑승자의 성격에 맞출 수 있다. 탈거된 시트는 트렁크 하부 공간에 보관하면 된다. 3열은 177cm 신장의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했다.

또 앞뒤 문쪽에는 크고 작은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적용해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음료나 물병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건을 크기에 맞춰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

트렁크 기본 용량은 527L로 이전 세대와 동급 사이즈를 확보했으며, 3열 시트 폴딩 시엔 1373L의 공간을 제공한다. 2열 시트까지 접으면 2464L에 달하는 공간을 확보해 차박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에게도 매력적이다.

주행 성능은 초반 가속력은 반박자 느리게 속도가 붙지만 일정하게 밀어붙

이는 힘이 매력적이다. 최신 4세대 V6 3.5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가 짝을 이루는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89마력, 최대토크 36.2kg.m의 나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팰리세이드보다 큰 덩치를 갖추고 있지만 고속 구간에서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고속 구간이나 불규칙 노면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했다.

연비도 매력적이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천안까지 왕복 약 250km를 주행한 결과 실 연비는 10.2km/L로 공인 연비(8.7km/L)를 훌쩍 뛰어넘었다.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은 부가세 포함 7090만원이다. 국내 대형 SUV 폴업선 모델의 가격이 6000만원 중반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혼다 파일럿 블랙 에디션은 패밀리카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모델임은 틀림없다.

/양성운 기자 ysw@

## STX, 페루에 6000만달러 규모 장갑차 공급

육군 조병창에 '백호' 30대 공급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페루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STX는 페루 육군 조병창(FAME S.A.C.)과 약 6000만달러(약 830억원)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STX 매출액의 약 9.17%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페루 방산 시장에서의 STX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본 계약은 지난 10월 24일에 체결되었고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으로 공식되었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되었다.

STX는 이번 계약을 통해 페루 육군 조병창에 현대로템의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3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이번 성과는 STX가 지난 5년간 페루 육군 조병창과 긴밀히 협력해 이룬 결실로, STX의 국방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STX는 페루 방산 시장에서 큰 매출을 기록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양사는 이번 계약에 이어 후속 물량과 관련된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장비 공급과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STX는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TX 관계자는 "페루에서의 방산 사업을 토대로 STX만의 독보적인 방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공개

내년 1분기 중 출시 예정

제네시스의 럭셔리 중형 전동화 SUV가 더욱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이하 GV70 전동화 모델)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디테일을 더해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해 첨단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네시스는 2025년 1분기 중 GV70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위)외장 (아래)실내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상세 가격과 사양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